

미 서니베일 다솜한국학교, 3·1절 기념 태극기 행진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3.07 13:20

학생들, 대형 태극기 맞잡고 “대한 독립 만세” 외치며 행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는 103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 학생들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했다. (사진 다솜한국학교)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103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 행진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는 103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 학생들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했다. (사진 다솜한국학교)

이날 수업을 통해 삼일절에 대해 배운 학생들은 수업을 마친 후 가로 길이 4.6미터, 세로 길이 3미터 크기의 대형 태극기를 맞잡고, 다른 한 손에는 손 태극기를 흔들며 학교 주위를 행진했다. 학생들은 애국가에 맞춰 행진하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고, 마지막에는 다함께 만세삼창을 외쳤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는 103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 학생들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했다. 3·1절 관련 단어 맞추기 시간. (사진 다솜한국학교)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는 103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 학생들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했다. 3·1절 관련 단어 맞추기 시간. (사진 다솜한국학교)

최미영 다솜한국학교장은 "3·1운동 1주년을 맞아 1920년 캘리포니아 다뉴바 시에서 개최됐던 삼일절 행사를 기억하며 학생들과 함께 재현해 보았다"며 "코로나로 오랜 시간 온라인 수업만 받던 학생들이 오랜만에 대면수업을 통해 3·1절 관련 단어 맞추기 등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수 기자